

유란시아서

<< [제 144 편](#) | [부분](#) | [내용](#) | [제 146 편](#) >>

제 145 편

가버나움에서 사건이 많았던 나흘

145:0.1 (1628.1) **예수**와 사도들은 1월 13일 화요일 저녁에 **가버나움**에 다다랐다. 여느 때처럼 그들은 **벳세다**에서 **세베대**의 집에 본부를 차렸다. **세레자 요한**이 처형되었으므로 **예수**는 **갈릴리**에서 처음인 공개 대중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준비했다. **예수**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도시에 두루 빨리 퍼졌다. 이튿날 일찍,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서둘러서 **나사렛**으로 아들 **요셉**을 찾아보러 떠났다.

145:0.2 (1628.2) 광범위한 첫 대중 전도 여행을 준비하느라고 **예수**는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을 **세베대**의 집에서 사도들을 가르치면서 보냈다. 또한 진지하게 묻는 많은 사람을 하나씩, 그리고 집단으로 받아들이고 가르쳤다. **안드레**를 통해서, 다가오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연설하도록 주선해 두었다.

145:0.3 (1628.3) 금요일 저녁 늦게, **예수**의 막내 누이 **룻**이 몰래 그를 찾아왔다. 그들은 물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정박한 배 안에서, 함께 거의 한 시간을 보냈다. **요한 세베대**를 제외하고 아무도 이번의 방문을 몰랐고 **요한**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을 받았다. **룻**은 아주 일찍 영적 의식이 들었을 때부터, **예수**의 집안에서, 파란이 많았던

봉사, 그리고 죽음 · 부활 · 승천을 바로 거치기까지, 땅에서 그의 사명이 신성함을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가장인 오라버니가 육체를 입고 행하는 임무가 초자연적 성질인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마침내 저 세상으로 갔다. 땅에 있던 그의 가족에 대하여 말하면, 그가 재판받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박히는 벅찬 시련을 통해서 내내, 막내 **룻**은 **예수**에게 최고의 위안이 되었다.

1. 물고기를 잡아올리다

145:1.1 (1628.4) 바로 이 주 금요일 아침에 **예수**가 바닷가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물가에 너무 가까이 그를 에워싸서 그는 가까이 있는 배에 타고 있던 어떤 어부들에게 구조(救助)하러 오라고 손짓했다. 배에 들어서서, 그는 모인 군중에게 두 시간이 넘도록 줄곧 가르쳤다. 이 배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시몬 베드로**가 예전에 고기잡이하던 배였고 **예수**가 손수 이 배를 만들었다. 이 특별한 날 아침에 **다윗 세베대**와 두 동료도 그 배를 쓰고 있었고, 호수에서 고기잡이하느라고 헛되이 밤을 새다가 물가 가까이로 막 들어왔다. **예수**가 도움을 청했을 때, 그들은 그물을 깨끗이 하고 고치고 있었다.

145:1.2 (1628.5)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마친 뒤에 **예수**는 **다윗**에게 말했다: “나를 도우려고 와서 너희가 지체되었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일하리라. 고기를 잡으러 가자. 저쪽 깊은 데로 배를 띄워 그물을 내려서 한 번 끌어당기라.” 그러나 **다윗**의 조수들 중의 한 사람, **시몬**이 대답했다: “주여, 소용 없나이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고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당신이 명령하시니, 우리가 배를 띄워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은 주인 **다윗**이 손짓했기 때문에 **예수**의 지시를 따르는 데 찬성하였다. **예수**가 가리킨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고,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까 두려웠다. 하도 많아서 물가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와 달라고 손짓했다. 배 세 척 모두를 거의 가라앉기까지 물고기로 채웠을 때, 이 **시몬**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말했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는 죄 많은 사람인 까닭이니이다.” **시몬**과 이 사건에 관계된 모든 사람이 얼마나 많이 물고기가 잡혔는가 보고 놀랐다. 그날부터 **다윗 세베대**와 이 **시몬**과 그 동료들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145:1.3 (1629.1)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기적으로 물고기를 잡아 올린 것이 아니다. **예수**는 자연을 자세히 살피는 연구자였다. 그는 경험 있는 어부였고 **갈릴리** 바다 물고기의 습성을 알았다. 이 경우에 다만 하루 중 이때에 물고기가 보통 발견되는 곳으로 이 사람들에게 가라고 지시했을 뿐이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것을 기적으로 여겼다.

2. 오후에 회당에서

145:2.1 (1629.2) 다음 안식일, 회당에서 오후 예배에, **예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관하여 설교했다. 아침에는 **시몬 베드로**가 “하늘나라”에 대하여 설교했다. 그전에 회당의 목요일 저녁 모임에서 **안드레**가 가르쳤고, 그의 주제는 “새 길”이었다. 이 특별한 시기에, 땅에서 다른 어느 도시보다 **가버나움**에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145:2.2 (1629.3) 이 안식일 오후에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예수**는 관습대로 처음 구절을 율법에서 골라서, 출애굽기에서 읽었다: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의 빵과 물에 복을 내리겠고, 모든 병이 너희에게서 물러가리라.” 예언서에서 둘째 구절을 골라서, **이사야**에서 읽었다: “일어나서 빛을 내라, 이는 네 빛이 다가왔고 주의 영광이 네 위에 이르렀음이라. 어둠이 땅을 덮고 큰 어둠이 사람들을 덮을지 모르나, 주의 영이 네 위에 이르겠고 신의 영광이 너와 함께 하심이 보이리라. 이방인들조차 이 빛으로 다가오고, 많은 위대한 사람이 이 빛이 밝은 것에 항복할지니라.”

145:2.3 (1629.4) 이 설교는 **예수** 편에서 종교가 개인적 체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려는 노력이었다. 다른 여러 가지 가운데 주는 말씀했다:

145:2.4 (1629.5) “너희가 잘 알다시피, 마음이 친절한 **아버지**는 가족 전체를 사랑하며, 한 무리로서 그렇게 여기는 것은 그 가족의 식구 하나하나를 깊이 사랑하는 까닭이라. 너희는 이제 더 **이스라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까이 가야 하느니라. 한 무리로서 너희는 정말로 **이스라엘**의 자손이지만, 개인으로서 너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자식이라. **아버지**를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가져오고, 개인적으로 겪는 진정한 체험으로서 개별 신자에게 그의 사랑과 자비를 계시하려고, 내가 왔노라. **야웨**가 그의 민족을 보살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선지자들이 다 너희를 가르쳤느니라. 그러나 더욱 큰 진실을 선포하려고 내가 너희 사이에 왔나니 **하나님**이 너 — 너희 하나하나를 — 개인으로서 사랑한다는 이 진실을 많은 후기 선지자가 또한 깨달았느니라. 이 모든 세대에 걸쳐서 너희는 민족이나 종족의 종교가 있었으나 이제 너희에게 개인적 종교를 주려고 내가 왔노라.

145:2.5 (1630.1) “그러나 이것조차도 새로운 생각이 아니라. 선지자들 중에 더러가 그렇게 너희에게 가르쳤은즉, 너희 사이에 영적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이 이 진실을 알았느니라. 성서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르는 것을 너희가 읽지 아니하였느냐? ‘그 시절에 저희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되 아이들의 이가 시다고 사람들이 더 말하지 않으리라. 사람마다 자신의 불의(不義) 때문에 죽을 것이요, 신 포도를 먹는 사람은 누구나 이가 시리라. 보라, 내가 내 민족과 새 언약을 맺는 날이 이르리니, 내가 **에집트** 땅에서 저희의 조상을 데리고 나올 때 저희와 약속한 대로가 아니라 새 방법을 따르리라. 나는 내 율법을 저희의 가슴 속에 쓰기까지 하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저희는 내 민족이 될지니라. 그날에 한 사람이 이웃에게, 네가 주를 아느냐? 하고 말하지 않으리라. 아니라!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모두 나를 개인적으로 알게 될 것임이라.’

145:2.6 (1630.2) “이 약속을 너희가 읽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성서(聖書)를 믿지 아니하느냐? 선지자의 말씀이 바로 오늘날 너희가 바라보는 것 중에 이루어졌음을 깨닫지 못하느냐? 종교를 마음의 일로 만들고, 바로 너희가 **하나님**께 개인으로서 이야기하라고 **예레미야**가 너희에게 훈계하지 않더냐? 하늘의 **하나님**은 너희 개인의 마음을 훑어보리라고 그 선지가 너희에게 이르지 않더냐? 인간의 타고난 마음은 무엇보다도 속이는 성향이 있고, 때때로 지독하게 사악하다고 너희가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느냐?

145:2.7 (1630.3) “종교가 너희 개인의 체험에서 현실이 되어야 한다고 **에스겔**이 바로 너희 조상에게 가르친 구절을 또한 읽지 아니하였느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더니 아이들의 이가 시더라’하는 속담을 너희가 이제 더 사용하지 아니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살아 있다시피, 보라 모든 혼이 내 것이로다, **아버지**의 혼처럼 아들의 혼도 마찬가지로. 오직 죄짓는 혼이 죽을지니라.’ 그 다음에 **에스겔**은 오늘날까지도 내다보았으니,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했더라: ‘내가 또한 새로운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요, 새 영을 너희 안에 두리라.’

145:2.8 (1630.4)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한 민족을 벌하리라고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한 민족이 지은 죄 때문에 믿는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을 벌하지도 아니하리라. 하지만 어떤 가족의 개별 식구도 가족의 잘못과 집단의 범죄로 생기는 물질적 결과를 흔히 겪어야 하느니라. 더 좋은 나라 — 더 좋은 세상 — 이 올 희망은 개인의 진보와 깨우침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지 못하느냐?”

145:2.9 (1630.5) 그 다음에 사람이 이 영적 자유를 깨달은 뒤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뜻하는 것은 땅에 있는 자녀들이 **파라다이스**로 영원히 올라가는 생애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주는 묘사했다. 이 생애는 **창조자**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와 같이 되려고 애쓰라는, 깃드는 영의 신성한 재촉에 사람이 의식하여 반응하는 것이다.

145:2.10 (1630.6) 사도들에게 이 설교는 크게 도움이 되었다. 모두가 하늘나라의 복음이 민족이 아니라 개인에게 전하는 소식임을 아주 충분히 깨달았다.

145:2.11 (1630.7)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익숙하기는 했어도, 이 안식일에 하신 설교를 듣고 놀라워했다. 그는 정말로, 서기관이 아니라 권한을 가진 자로서 가르쳤다.

145:2.12 (1630.8) **예수**가 말씀을 막 마쳤을 때, 회중 가운데 말씀에 아주 흥분한 어느 젊은이가 사나운 간질병으로 발작이 일어나 크게 소리쳤다. 발작이 끝났을 때, 정신을 차리면서 꿈 같은 상태에서

말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당신은 우리를 죽이러 왔나이까?” **예수**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 명하고, 젊은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정신을 차려라” — 그리고 그는 즉시 깨어났다.

145:2.13 (1631.1) 이 젊은이는 더러운 귀신이나 악마에 들려 있지 않았다. 평범한 간질로 고생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자기의 질병이 악한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라고 가르침을 받아왔다. 그는 이 가르침을 믿었고, 자기 병에 관하여 생각하고 말한 모든 것을 믿었던 대로 행동하였다.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가 그런 현상을 직접 일으킨다고 모두 믿었다. 따라서 **예수**가 이 사람한테서 악마를 내쫓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때 **예수**는 그 간질을 고치지 않았다. 이 사람은 그날 조금 뒤에 해가 질 때까지 정말로 고침을 받지 않았다. 오순절(五旬節) 날이 오래 지난 뒤에, **예수**의 행적을 마지막으로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른바 “악마를 내쫓는” 이 행적에 대하여 전혀 언급을 피했고, 악마에 들린 그런 경우가 오순절 뒤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그렇게 했다.

145:2.14 (1631.2) 이 평범한 사건의 결과로, 회당에서 오후 설교를 마쳤을 때 **예수**가 한 사람에게서 악마를 쫓아냈고 기적으로 그를 고쳤다는 보고가 **가버나움**을 통해서 빨리 퍼졌다. 안식일은 그런 깜짝 놀랄 헛소문이 빠르게 효과적으로 퍼지기에 꼭 맞는 때였다. 이 보고는 또한 **가버나움** 둘레의 모든 작은 촌락까지 전해졌고, 많은 사람이 이를 믿었다.

145:2.15 (1631.3) **예수**와 열두 사도가 본부를 두었던 **세베대**의 큰 집에서, 음식 만드는 일과 집안 일은 대체로 **시몬 베드로**의 아내와 장모가 맡아서 하였다. **베드로**의 집은 **세베대**의 집 가까이에 있었다. **예수**와 친구들은 회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집에 들렀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몸이 떨리고 열이 나서 며칠 동안 아팠기 때문이었다. **예수**가 서서 이 아픈 여인을 내려다보고, 손을 만지고 이마를 쓰다듬으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할 때쯤에, 어찌다가 열이 떨어졌다. **예수**는 회당에서 아무런 기적(奇蹟)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사도들에게 설명할 겨를이 아직 없었다. 이 사건이 머리 속에 아주 새롭고 눈에 선하였고, **가나**에서 있었던 물과 포도주를 상기하면서 그들은 이 우연을 또 하나의 기적이라고 잡아챘고 몇 사람은 달려나가서 도시 전역에 널리 그 소식을 퍼뜨렸다.

145:2.16 (1631.4) **베드로**의 장모 **아마타**는 말라리아 열병을 앓고 있었다. 이때 **예수**에게 기적으로 치유받지 않았다. **세베대**의 집 앞뜰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과 관련하여, 그 여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해가 지고 나서 몇시간 더 지난 뒤였다.

145:2.17 (1631.5) 이 사례들은, 이적을 찾는 세대와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모든 그런 우연의 일치를 **예수**가 또 하나의 기적을 행했다고 선포하는 구실로 어김없이 이용하는 방식의 전형(典型)이다.

3. 해 질 때의 병 고침

145:3.1 (1631.6) **예수**와 사도들이 사건이 많았던 이 안식일이 저물 무렵에, 저녁을 먹으려고 준비할 때가 되자 온 **가버나움**과 그 주위는 기적으로 병을 고쳤다는 이 소문으로 시끌벅적했다. 바로 해가 지자마자, 아프거나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예수**에게 가거나, 친구들에게 몸을 실어 나르게 하려고 준비를 시작했다. **유대인**의 가르침에 따르면, 거룩한 안식일 동안에는 병 고침을 추구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145:3.2 (1632.1) 따라서 해가 지평선 밑으로 가라앉자마자, 병든 남녀와 아이들 수십 명이 **벳세다의 세베대** 집을 향하여 길을 떠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해가 이웃 집 뒤로 지자마자, 중풍이 든 딸과 함께 길을 떠났다.

145:3.3 (1632.2) 그날 하루 종일 있었던 사건들이 이 놀라운 해질녘의 장면을 위하여 무대를 마련했다. 오후의 설교에 **예수**가 이용한 구절조차 질병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암시했다. 그는 그러한 전례 없는 힘과 권한을 가지고 말씀했다! 그의 말씀은 사람을 사로잡았다! 아무런 인간적 권위로 호소하지 않았어도 사람들의 양심과 혼에게 직접 말했다. 논리나 율법의 말씨름이나 재치 있는 말을 이용하지 않았어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힘차게 직접, 뚜렷하게 개인적으로 호소했다.

145:3.4 (1632.3) 그 안식일은 **예수**가 땅에서 산 생애에서, 옳거니, 한 우주의 역사에서 대단한 날이었다. 지역 우주의 모든 계획과 목적으로 볼 때, 작은 **유대** 도시 **가버나움**은 **네바돈**의 참 수도였다. “미움은 두려움의 그림자요 복수는 비겁을 감추는 가면이라”는 말씀, **예수**의 설교에서 중대한 끝맺는 말씀을 들은 존재들은 **가버나움**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 몇 사람만이 아니었다. 청중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악마의 자녀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복된 말씀도 잊을 수 없었다.

145:3.5 (1632.4) 해가 진 뒤에 곧, **예수**와 사도들이 아직 저녁상 근처에 남아 있었는데, **베드로**의 아내가 앞뜰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들었다. 문까지 가면서 큰 무리의 아픈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가버나움**에서부터 **예수**의 손에서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오고 있는

사람들로 길이 메어진 것을 보았다. 이 광경을 보고 나서 그 여자는 대번에 남편에게 가서 일렀고 남편은 **예수**에게 알렸다.

145:3.6 (1632.5) **세베대의** 집 앞문에서 한 걸음 내디디었을 때, 주는 줄지어 선 사람들, 병들고 고통 받는 인류를 보았다. 병들고 고통 받는 사람, 거의 1천 명을 바라보았다. 적어도 그만큼의 사람들이 주 앞에 모여들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몸이 아프지는 않았다. 더러는 그들이 아끼는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으려고 이렇게 애쓰는 것을 도우려고 왔다.

145:3.7 (1632.6) 대체로, 자신이 신뢰했던, 우주 행정을 담당한 **아들**들의 잘못과 그릇된 행동의 결과로서 고통받는 이 사람들, 어른과 아이들의 모습은, 특별히 **예수**의 인간 마음을 움직였고 이 인자한 **창조 아들**의 신다운 자비로움에 도전했다. 하지만 **예수**는 순전히 물질적 기적(奇蹟)에 기초를 두고 오래 가는 영적 운동을 결코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다. **창조자** 특권 드러내기를 삼가는 것이 그의 일관적 정책이었다. **가나** 이후에 초자연적인 일이나 기적 같은 일이 그의 가르침을 따라 생기지 않았다. 그래도 고통받는 이 군중은 그의 동정심을 움직였고 이해심을 가진 그의 사랑에 힘차게 호소했다.

145:3.8 (1632.7) 앞뜰에서 한 사람이 외쳤다: “주여,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되찾아 주소서, 우리의 병을 고치고 우리의 혼을 구원하소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육신이 된 이 우주 **창조자**를 항상 따라다니던 세라핌, 물리 통제자, 생명 운반자, 중도자들로 이루어진 방대한 수행원들이, 군주가 신호(信號)를 내릴 경우에 창조 능력으로 행동하려고 준비했다. **예수**의 지상 생애에서, 신의 지혜와 인간의 동정심이 **사람의 아들**의 판단 속에 서로 얹혀서, **아버지**의 뜻에 호소함으로 피난처를 찾은 순간이었다.

145:3.9 (1632.8)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베드로**가 주께 애원했을 때, **예수**는 병든 무리를 내려다보고 대답했다. “나는 **아버지**를 드러내고 그의 나라를 세우려고 세상에 왔고,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이 시간까지 생애를 살아 왔노라. 그러므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면, 그리고 하늘나라 복음의 선포에 헌신하는 것과 어긋나지 않는다면, 내 아이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보고 싶노라 — 그리고 — ” 그러나 더 하신 말씀은 떠들썩한 가운데 파묻혔다.

145:3.10 (1633.1) **예수**는 병 고치는 이 결정의 책임을 **아버지**의 판결에 넘겼다. 분명하건대, **아버지**는 아무런 반대할 뜻을 보이지 않았으니, 주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인격이 된 **예수**의 **조절자**의 지휘 하에서 수고하는 하늘 성격자 집단이 힘차게 술렁거렸기 때문이다. 병든 필사자들이 뒤섞인 이 무리 사이에 방대한 수행원들이 내려왔으며, 한 순간에 어른과 아이 683명이 온전하게 되었고 모든 육체의 병과 기타 물질적 질환을 완전히 고침 받았다. 그날 이전이나 이후에, 결코 그런 장면을 땅에서 구경한 적이 없었다. 병을 고치는 이 창조적 물결을 구경하려고 자리에 있던 우리에게, 이것은 정말로 가슴 떨리는 광경이었다.

145:3.11 (1633.2) 그러나 갑작스럽고 기대하지 않았던 초자연적 치유가 이렇게 일어난 데 놀란 모든 존재 가운데 **예수**가 가장 놀랐다. 인간적 관심과 동정심이 그 앞에 펼쳐진 고통과 질병의 장면에 집중된 순간에,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 아래서, **창조 아들**의 창조 특권에서 시간 요소를 제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인격화된 **조절자**가 타일러 경고한 것을 그의 인간 정신은 미처 기억하지 못했다. **예수**는 이렇게 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어기지 않는다면 이 고통 받는 필사자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보고 싶었다. 인격이 된 **예수**의 **조절자**는 그때 그런 창조적 에너지 행위는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뜻을 어기지 않으리라고

순식간에 판결했다. 그런 결정에 따라서 — 병 고치려는 소망을 **예수**가 앞서 표현한 데 비추어 — 그 창조 행위는 이미 일어났다. 창조 아들이 바라고 **아버지**가 뜻하시는 것은 이미 존재한다. 그 뒤에 **예수**가 땅에서 산 여생 동안 내내, 그렇게 집단으로 필사자의 육체를 치유한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145:3.12 (1633.3) 너희가 혹시 기대할까 싶지만, **가버나움의 벳세다**에서 해질 때 이렇게 사람들을 고쳤다는 소문은 온 **갈릴리**와 **유대**에 두루, 그리고 그 지역을 지나서 퍼졌다. 다시 한 번 **헤롯**은 두려워졌고, **예수**의 행적과 가르침에 대하여 보고하고 그가 이전의 **나사렛** 목수인가 아니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세례자 요한**인가 확인하라고 감시자들을 보냈다.

145:3.13 (1633.4) 육체의 치유를 뜻하지 않게 이렇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주로, 이때부터 땅에서 여생 동안 내내, **예수**는 설교자일 뿐 아니라 의사가 되었다. 계속 가르친 것이 참말이지만, 몸소 한 일은 대체로 병자와 쇠약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이었고, 한편 사도들은 대중에게 설교하고 신자들에게 세례 주는 일을 했다.

145:3.14 (1633.5) 그러나 해질 때 신의 에너지가 전시되었을 때 초자연이나 창조의 힘으로 육체의 병을 고침 받은 사람들의 대다수는, 특별한 자비가 이렇게 나타난 것에 영구하게 영적 소득을 얻지 못했다.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이 육체적 보살핌으로부터 참으로 교훈을 받았지만, 시간을 초월한 창조적 치유가 이렇게 놀랍게 일어난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영적인 나라가 진보하지는 않았다.

145:3.15 (1633.6) 땅에서 **예수**의 사명에 이따금 따랐던 병 고치는 이적 (異蹟)들은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그의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다. 전례 없이 신의 자비와 인간의 동정심이 결합되는 것과 관련하여, 거의

한없는 **창조자** 특권을 가진 신다운 존재를 땅에 계시게 할 때 본래부터 이러한 이적들이 우연히 따르게 된다. 그러나 편견을 일으키는 명성과 구하지 않던 나쁜 평판을 많이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이른바 기적들은 **예수**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4. 그날 저녁

145:4.1 (1634.1) 이 병 고치는 사건이 크게 터지고 나서 저녁 내내, 기쁘고 즐거운 군중이 **세베대**의 집에 밀어닥쳤고, **예수**의 사도들은 흥분의 절정에 이르렀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날은 아마도 **예수**와 함께 지냈던 동안에 모든 좋은 날 중에서도 가장 좋은 날이었다. 그전이나 그후 어느 때에도 사도들의 희망이 자신 있게 기대하는 그런 경지(境地)까지 솟아오르지 않았다. 겨우 며칠 전에, 그리고 아직 **사마리아** 경계 안에 있을 때, **예수**는 그들에게 하늘나라가 권능으로 선포될 때가 다가왔다고 일렀고, 그 약속의 성취라고 생각되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보았다. 치유하는 힘이 이렇게 놀랍게 나타난 것이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하는 환상으로 그들은 몸이 부르르 떨렸다. **예수**가 신인가에 대하여 남았던 의심은 사라졌다. 그들은 글자 그대로, 어리둥절한 가운데 황홀한 기쁨에 취했다.

145:4.2 (1634.2)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찾았을 때, 그는 눈에 띄지 않았다. 주는 벌어진 일 때문에 마음이 많이 언짢았다. 여러 가지 병을 고침 받은 이 어른과 아이들은 저녁 늦게까지 남아 있었고 감사의 말씀을 드릴까 하여 **예수**가 돌아오기를 바랐다. 시간이 지나고 **예수**가 은둔해 있자 사도들은 주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계속 자리를 비우지만 않았다면, 그들의 기쁨은 충만하고 완벽했을 것이다. **예수**가

돌아왔을 때, 시간이 늦었고 병 고치는 사건으로 혜택 받은 거의 모든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버렸다. **예수**는 열두 사도, 그리고 그에게 인사하려고 남아 있던 다른 사람들의 축하와 찬미를 물리치고, 오직 말했다: “내 **아버지**가 몸을 고칠 힘이 있다고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혼을 구원할 힘이 있음을 기뻐하여라. 쉬러 가자, 내일 우리는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함이라.”

145:4.3 (1634.3) 또 다시, 실망하고 당황하고 슬픈 열두 사람은 쉬러 갔다. 쌍둥이를 빼고, 거의 아무도 그날 밤에 별로 눈을 붙이지 못했다. 사도들의 기운을 북돋우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무슨 일을 하자마자, 주는 즉시 그들의 희망을 박살내고 용기와 열심의 근거를 살살이 파괴하는 듯하였다. 어리둥절한 이 어부들이 서로 눈을 들여다보았을 때,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그를 이해할 수 없구나. 이 모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5. 일요일 이른 아침에

145:5.1 (1634.4) **예수**도 그 토요일 밤에 별로 눈을 붙이지 못했다. 세상이 육체의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물질적 어려움이 넘쳐흐르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적 나라를 세우는 사명이, 육체적인 것을 보살피는 데 방해받거나, 아니면 적어도 예속되기까지 병자와 고통 받는 자를 돌보는 일에 시간을 아주 많이 바치도록 강요 당하는 큰 위험을 숙고해보았다. 그날 밤에 **예수**의 인간 정신을 차지한 이 생각, 그리고 비슷한 생각들 때문에, 그는 날이 새기 오래 전,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와 교통하려고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한 곳으로 혼자서 갔다. 이 이른 아침에 **예수**가 기도한 주제(主題)는,

필사자의 고통을 직면하여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하면서 육체적으로 봉사하는 일이 그의 시간을 모두 차지하도록 그렇게 신의 자비와 인간적 동정심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지혜와 판단을 얻으려는 것이었다. 비록 병자 돌보는 일을 완전히 피하기를 바라지는 않았어도, 그는 또한 영적 가르침과 종교 훈련과 같은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145:5.2 (1635.1) 개인적으로 예배하기에 적당한 혼자 쓸 방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는 아주 여러 번 산으로 기도하러 나갔다.

145:5.3 (1635.2) **베드로**는 그날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가 기도하러 나간 뒤에 즉시, **야고보**와 **요한**을 깨웠고 세 사람은 주를 찾으러 갔다. 한 시간이 넘도록 찾다가 **예수**를 찾아냈고 그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까닭을 설명해달라고 청하였다. 모든 사람이 기쁨에 넘쳐 있고 사도들이 대단히 기뻐하며, 치유하는 영이 힘차게 퍼부어진 것이 그를 불편하게 만든 듯이 보이는데 어째서 그런가 알고 싶어 했다.

145:5.4 (1635.3) 네 시간이 넘도록 **예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세 사도에게 설명하려고 애썼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가르치고 그러한 전시의 위험을 설명했다. 그는 기도하러 나온 까닭을 그들에게 털어놓았다. 어째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적을 행하고 육체를 치유하는데 기초를 두고 세워질 수 없는가 하는 참 이유를 동료들에게 분명히 설명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었다.

145:5.5 (1635.4) 그동안, 일요일 아침 일찍, 병을 앓는 다른 사람들의 무리와 호기심으로 찾아오는 많은 사람이 **세베대**의 집 근처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려고 떠들썩했다. **안드레**와 사도들은 너무 당황해서, 열심당원 **시몬**이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동안, **안드레**는 몇몇 동료와 함께 **예수**를 찾으러 갔다. 세 사람과 함께 있는 **예수**를 찾아냈을 때, **안드레**는 말했다: “주여, 당신은

어째서 우리만 군중과 함께 있도록 두시나이까? 보소서, 모든 사람이 당신을 찾나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당신의 가르침을 찾은 적이 전에 없었나이다. 지금도 당신이 하신 막강한 일 때문에, 가까이서 멀리서 온 사람들로 집이 둘러싸였나이다. 우리와 함께 저희를 보살피러 돌아가지 않겠나이까?”

145:5.6 (1635.5) 이 말을 듣자 **예수**는 대답했다: “**안드레**야, 땅에서 내 사명은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이요, 내가 전할 말은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너와 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르치지 않더냐? 그렇다면, 호기심 있는 자를 충족시키고, 징조와 이적 찾는 자를 만족시키려고 네가 나로 하여금 내 일을 제쳐놓게 하고 싶어 하다니 어인 일이냐? 이 몇 달 동안 내내 이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있지 않았더냐, 하늘나라의 좋은 소식을 들으려고 저희가 무리를 지어 모였느냐? 어찌하여 저희가 와서 지금 우리를 둘러싸느냐? 저희가 혼의 구원을 받으려고 영적 진실을 받아들인 결과가 아니라 육체의 치유 때문이 아니냐? 특별한 전시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끌릴 때, 저희 가운데 많은 사람은 진실과 구원을 찾으러 오지 않고, 오히려 육체의 병을 고침 받고 물질적 문제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오는 것이라.

145:5.7 (1635.6) “여태까지 내가 **가버나움**에 있었고, 회당에서, 바닷가에서, 들을 귀가 있고 진리를 받을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였노라. 호기심 있는 이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영적인 것을 제쳐놓고 육체의 일을 보살피는 데 바빠지려고 너와 함께 돌아가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아픈 자를 보살피라고 내가 너희를 세웠으나, 내 가르침을 제쳐놓기까지 병 고치는 일에 내가 파묻혀서는 안 되느니라. **안드레**야, 아니라 나는 너와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저희에게 가르친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얻은 자유를

기뻐하라 이르라. 그리고 **갈릴리**의 다른 여러 도시를 향하여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하여라. 거기에는 하늘나라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길이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노라. 그러면 여기서 네가 돌아오기를 내가 기다리는 동안, 가서 즉시 떠날 준비를 하여라.”

145:5.8 (1636.1) **예수**가 말씀하고 나자, **안드레**와 동료 사도들은 슬픔에 잠겨 **세베대**의 집으로 돌아가서 모인 군중을 해산하였고, **예수**가 지시한 대로 여행을 위하여 재빨리 준비했다. 그래서, 서기 28년 1월 18일 일요일 오후에, **예수**와 사도들은 **갈릴리**의 여러 도시에서 처음으로 정말로 공개된 대중 전도 여행을 떠났다. 이 첫번째 여행을 하면서 여러 도시에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도했지만 **나사렛**에 들리지는 않았다.

145:5.9 (1636.2) 그 일요일 오후에, **예수**와 사도들이 **림몬**을 향하여 떠난 뒤에 조금 있다가, 아우 **야고보**와 **유다**가 그를 만나러 왔고 **세베대**의 집에 들렸다. 그날 한낮 무렵에 **유다**는 형 **야고보**를 찾아다녔고 같이 **예수**한테로 가자고 졸랐다. **야고보**가 **유다**와 함께 가기로 찬성했을 때가 되자 **예수**는 이미 떠나버렸다.

145:5.10 (1636.3) 사도들은 **가버나움**에서 크게 관심을 휘저어 놓고 떠나기가 싫었다. **베드로**는 1천 명 이상의 신자들에게 세례를 주어 하늘나라로 들여보낼 수 있었다고 계산했다. **예수**는 참을성 있게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돌아가는 데 찬성하려 하지 않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다음에 **토마스**가 동료 사도들에게 말했다. “가자! 주가 말씀하셨느니라. 하늘나라의 신비(神秘)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없어도 상관없으니, 우리가 한 가지는 확실하니라.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아무 영광을 찾지 않는 선생을 따르노라.” 마지못해서 그들은 **갈릴리**의 여러 도시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떠났다.